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정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LA 교민을 돕자

범교회적 차원에서 협력 지원키로 충헌 성도들의 적극 참여 있어야

지난 4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흑인폭동으로 재미 교포들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는 등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에 지난 5월 4일 기독교 26개 교단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 기독교 재미 교포 재해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교회적 차원에서 구호 헌금을 모아, 재난을 당한 동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대책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주일)을 재난 당한 재미 교포를 위하여 전국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일로 정하고, 특별 구호 헌금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급박한 사정을 인식하고 6일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이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따라서 5월 17일 우리 교회에서도 구호 헌금 운동을 전

개한다.

충헌의 모든 성도들은 이국 만리에서 불의의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미 교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시련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카메라 초점



▲ 지난 5월 8일로 청지기훈련이 모두 끝났다. 여섯 차례에 걸쳐 교구별로 실시된 이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은 영성 훈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사랑의 쌀 헌금

오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동참키로 한 우리 교회는 오늘 분당 로비에 모금함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일부 지역 및 아시아, 아프리카 몇 나라를 비롯하여

국내 불우 이웃, 극빈 장애인들을 위한 이 운동에 충헌의 모든 성도들은 적극 참여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주 기독교 방송 선교 프로에 예배 실황 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국의 선교 방송 ‘별을 찾아서’ 시간에 우리 교회의 예배 실황이 방송된다.

지난 90년 8월 23일 개국한 미주 기독교 방송국은 미국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남부 지역 일대에서 복음과 찬양으로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마리아제14지회 바자회 열어 수익금은 봉사관 건축헌금으로

마리아전도회 제14지회(회장 지아연 집사)는 지난 4월 28일 제3회 자체 바자회를 정영희 집사실에서 개최하였다.

바자회 당일 날씨는 좋지 않았으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봉사관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수도노회 주교연합회(회장 송기홍 장로)는 오는 5월 16일(토) 오후 2시 어린이대공원(농동 소재)에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초등1년부터 초등6부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회에 충헌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순회 선교 세미나 우리 교회서 개최

총회선교부가 주관하는 총회 설립 8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인 전국 순회 선교 세미나 서울 집회가 오는 5월 25일(월) 충헌교회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온 총회 소속 선교사들이 참가하여 선교 사역을 검토하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 이준교 선교사(에콰),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참가한다.

충헌금요찬양 은혜롭게 진행

지난 5월 8일부터 “충헌금요찬양”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이 찬양 집회는 김민식 집사가 인도하는 찬양의 시간, 간증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생생 찬양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매가운뎃분부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키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교인 매가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충헌금요찬양” 집회에 많은 충헌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에 동참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충헌프리즘

◎...지난 4월 29일에 일어난 LA 폭동은 금세기말 최악의 비극이었다.

엄청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에 국내의 모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60년대 개난에 못이져 닳은 땅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갇은 고생과 고초를 당해가며 코리아 태운을 설립한 교포들의 피와 땀에 일순간 한 줄의 재로 폐허가 되었다.

우리 한국 민족 대다수가 지상 천국으로 생각하였던 미국에서 오랫동안 흑백 인종 분규의 소용돌이가 분출되어, 결국 제3자인 우리 교포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당하게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민의 왜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교회 출석은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그들의 슬픔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며,

위로와 재기의 꿈을 심어줄 때가 되었다.

◎...우리 교회 조직 가운데 협력 구역장 제도가 있다.

규정집 교구 일꾼 제도에 의하면, 협력 구역장은 협력 구역의 모임을 인도하며, 그 중 남자 성도들을 독려하여 교회 봉사와 구역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협력 교구 모임을 소집, 인도하고, 경조 업무에 남자 성도들을 동원하여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이 협력 구역장들에게 잘 주지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협력 구역장들이 많다.

교회가 기본 골격(봉사의 핵심)을 만들었으니, 협력 구역장들은 솔선수범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구역 활성화에 앞장서며, 교구 발전과 교회 부흥에 밑거름 역할을 다하는 협력 구역장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실도 없으시니라”(대하19:7)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세 레 요 한

“그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마3:1~17)

1. 세레 요한의 설교

마태복음 3장에는 세레 요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마3:1, 2)

세레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와 내용이 같습니다.

세레 요한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세레 요한은 “회개하라”로 설교하였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가던 방향의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비교해볼 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후회는 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처럼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하는 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와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성령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럴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번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한 설교를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설교도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 비유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며, 하나님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른 것일까요? 세대주의자들은 하늘나라와 하나님나라를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에는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

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망령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컫지 말라’라는 데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나라’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나라라는 말과는 본질상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2. 천국의 의미

천국을 갔다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천국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이 세상에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체험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말은 천국을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뒤에 가는 천국과 현재적인 면으로서의 천국은 다릅니다.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 통치 영역으로서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은 이 지상이 완전히 타버리고 마치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천국에서 살아가려면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편 현재적인 측면의 천국이란 추상적 의미의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력을 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확장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마3:3)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드리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사40:3)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란 예수님과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은 일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써 장차 임할 천국을 준비해야

마태는 세레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앞에 온 선구자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레 요한을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대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들은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마3:4)

세레 요한이 겸소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4. 요한과 예수님의 세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마3:5, 6)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첫째, 세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세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예수님의 세례받아야 합니다. 세레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준비 세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들은 세레 요한의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받았습니다. 세레 요한이 베푼 세례의 특징은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레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마3:7~10)

여기서 세레 요한의 강력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사는 위험에 놓이지 않는 한 공격을 하지 않고 주변 환경 속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레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3:11)

이 말씀에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등 세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받은 물세례나 성령세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불세례라는 말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함께 쓰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물이나 불과 같은 성질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은 씻겨주는 역할을 하듯이 성령은 더러운 죄악을 씻어줍니다. 불은 어둠을 밝혀주고 뜨거운 역할을 하며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세례를 받아 회개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비추고 태워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한다면 혹은 무신경하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애원물로서, 또는 우상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누군들 이 “부드러운, 평온한, 발그스레한, 잘룩잘룩한, 껌안고 싶은, 연약하고 자그마한” 존재에 몰입치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이를 사랑함에는 이와 같은 본능적, 감각적 사랑의 영역 이외에도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영역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생명과 복지, 그리고 그의 영적, 일반적 교육이 그것들이다. 이 글은 지면상 두번째 부류에 대한 관심만을 다루게 될 것이다.

1. 어린이란?

첫째, 어린이는 한 인격이다. 생명을 가진 그는 “나”라는 인간의 대상이며 관계자인 “너”로서 개성을 지닌 한 인간이다.

둘째,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투영되어 있다. 이 사실은 심리학적 통찰과 교회 내에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복음사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셋째, 어린이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의해 인격적으로 창조된 그는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성을 발견한다.

○총현논단○

기독교 교육과 어린이 사랑

장경철 목사(제1교육위원회·제11교구 지도)



넷째, 어린이는 요구하는 존재이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관계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그 초기의 상대는 부모가 될 것이나 차츰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간다.

2. 어린이의 영적 양육

기독교인의 아이는 새로운 계약하에 세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 그를 바친 자들에게는 그를 기독교인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첫째,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아이의 출생에 반영된 창조에는 어떤 신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비록 원죄가 유전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생각케 하는 존재이다. 즉, 그에게는 순수성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아름다운 그의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사랑(양육)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다. 8세까지의 어린이는

소위 “원동력” 및 “자아 중심적” 단계의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우리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특성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과 공상을 구별치 못하는 것이다. 창조력과 상상력이 풍부하여 초자연적 신비에 쉽게 매료될 뿐 아니라 쉽게 자신을 동화시킨다. 이러한 특성이 그로 하여금 산타 클로즈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께로의 개방성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그의 종교적 환경을 안정시키고 더욱 그의 신앙을 폭넓게 노출시켜야 한다.

셋째, 어린이는 영적, 도덕적 성숙을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보다 성숙된 도덕적 사고를 위한 상상적 열망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신채적, 지적 성장에 비해 이러한 영적, 도덕적 성향은 무시되므로 많은 미성숙 수준에서 정지된 신앙인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신앙은 전수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으시며 오직 아들을 두실 뿐이다.” 기독교 신앙은 유전자나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며, 생득적(生得的) 권리나 상속으로 계승되지도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 한 어린이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신중히 자녀에게 학습시켜야 한다.

다섯째, 초기의 일관적이고 은화한 기독교 양육 환경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름에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이끈다.

긍정적인 종교적 환경,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세, 여러 상황에서 복음이 타당함을 생활과 간증으로 확인케 하는 일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들이 언젠가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쉽게 하고, 그에게 응답할 때 확신을 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린이는 최선의 성장을 하게 된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라 한다면, 어린이는 교회에서 상기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받은 어린이는 비슷한境遇에 비해 다른 조직이나 관계에 우수히 적응한다. 기독교 신앙

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평생의 가치관은 아동기에 형성된다.

어린이가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일관된 가치 방향이 필수적이라는 이론은 거의 상식적이다. 인생의 가장 초기의 경험들은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걸쳐 전생애에 폭넓게 위치한다. 이런 시기에 변하기 마련인 부모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 특히 그것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오염된 것들일 때의 해악성은 심각하다.

3. 그러므로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의 사랑보다 명확한 방향 감각이 필요하다. 진리에 입각한 가치관과 방법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육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기형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가 표명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아 성취를 도우며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성품을 소유한 성숙자로 이끌어야 하겠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한다.
2. 성숙한 의사 결정을 하되 내재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게 한다.
3. 참된 경건을 지니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

장로칼럼

이단(異端)을 바로 알자



김재준 장로
(새가정부장)

일상적으로 이단이란 전통 권위에 반항하는 학설이든가 시류에 어긋나는 사상이나 학설, 옳지 않은 도 또는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교적 뜻은 정통에서 벗어나 어떤 신앙적인 실을 내세우는 공인받지 못하는 교파라고 말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공자 사상과 다른 제자백가를 일컫는 말이며 불교에서는 의도 또는 조사의 도나 전승에서 어긋나는 사설(私說)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일반론적 종교철학상의 뜻을 정리해보면 어떤 종교의 내부에서 정통으로 공인되는 신앙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교설이나 종파로서 특히 전자가 후자를 배타적으로 부르는 경우의 호칭이다. 원래 일정한 견해와 그로부터 교집하는 자들의 의미였으나 기독교의 발전과 더불어 위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종교회나 교단의 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규례화 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항상 내부에 적이 함께 하고 있었

다. 이 같은 옳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항하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내부의 적은 그 무엇보다 더 위험한 적이었다.

2세기의 영지주의나 사신론(死神論) 등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항상 도전하여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전15:3~4)는 말씀이 오늘날 정통 기독교와 이단들과의 차이점을 짚 수 있는 경계선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정통 기독교와 타교를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정하는 이단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며 자기들이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 진리에 속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특별히 선택된 무리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거나 인간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인다.

셋째, 그들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며, 선행과 자기들의 교리에 부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그들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에 추가시킨 그들의 지도자의 교리를 믿는다.

다섯째,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인간, 하나님, 성경, 천국과 지옥, 구원 등 중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법대로 안하는 것이 이단이다(마

7:21~23).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단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오늘날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서 믿는 자(갈3:10),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갈1:8),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전16:22),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 승천할 때의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행1:10~11) 등이 이단에 속한다.

이단의 사례(事例)

1. 1882년경 미국에서 일어난 물몬교는 원죄를 부인하며 일부다처주의를 주장한다.

2. 여호와의 증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14만 4천명만 구원받았다고 한다.

3. 문선명 집단(통일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한 자로 보며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4. 천부교(전도관), 일명 박태선교는 오늘의 기독교를 1980년 1월 1일을 기해 “성경은 98퍼센트가 가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99퍼센트가 죄당여리다. 이 땅에 오신 새 하나님에 박태선이며, 그의 나이는 5798세이다.” 등의 하나님, 예수님, 성경을 완전 부정하고 기독교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밖에도 1992년의 종말 계시를 운운하는 이장림 무리도 있다.

다음호 칼럼은 윤광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성을 이루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어떤 토양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생활하느냐는 이런 이유에서 중요한 것이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끼어 있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5월 한 달을 지낸다. 그러나 매년 돌아오는 5월을 연례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성스러운 조직인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충현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주 주간충현에서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동우 집사(제7교구) 가정을 찾아보았다.

이동우 집사는 할머니인 김연일 원로 권사에게서 신앙을 물려 받았다. 한 동안 다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이 집사는 할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90년 11월 다시 충현교회에 나오며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이 집사는 부인 방지영 집사와의 사이에 아들 태희(초등6부)와 딸 은비(초등4부)를 두고 있다. 이 집사와 방 집사는 지금 할렐루야찬양대에서 함께 봉사를 하고 있으며, 방 집사는 교구에서는 구역장

집사의 가족들은 회사나 학교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생활한다. 또한 저녁 식사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 집사에게는 매일 저녁 일찍 퇴근하고 귀가한

기회 있을 때마다 합창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도 한다.

가능한 한 부모와 자녀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는 신조 아래 생활하고 있는 이 동우 집사는 그래서 본인 혼자만이 즐기는 취미는 없다. 그러나 그 대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생활한다든지 한다. 그런 이 집사의 생활 신조로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나 예절 교육을 자연스럽게 지도하고 있다.

학창 시절 한 때 학교 생활에 치중하다가 교회를 등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집사는 명문학교에 진학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보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가정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교회에서도 입시 위주의 세상 교육에 휩쓸리지 말고 어린 영혼들이 바탕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하였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집사의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탐방◀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믿음 안에서 단란함 꽃 피우는 이동우 집사 가정 -



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집사와 태희, 은비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함께 둘러 앉아 하나님께 하루의 생활을 의탁하는 기도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정 예배를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퇴근 시간 이후로 업무를 미루지 않는다. 또 딸 은비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찬송가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를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 그리고 선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영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 갖기, 교구 배가, 구역장 교육, 충현금요찬양을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선교)
5. 충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소서.
6. 재난을 당한 미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4교구 전가족 친교회 열어

제14교구(교구장 최대원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 부지도 손미희 전도사)는 싱그러운 5월을 맞아 오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대공원에서 교구 전 가족과 태신자, 이웃을 동반하여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현재 교회 배가운동과 가을에 전개될 총동원 전도에 초점을 두고 교구장, 지도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정성으로 뜻대를 향해 발을 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 즐거운 날이 전 교구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손에 손을 잡고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교회의 넉넉한 지원과 교구의 힘을 합쳐 갖게 되는 이 풍성한 잔치가 정녕 많은 열매로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감사를 고대한다.

계 간 충현 원 고 모 집

- | | |
|---|--|
| · 원고내용 : 시, 수필, 전도체험
기, 신앙 간증, 배가운동 및 교회
부흥과 성장에 필요한 제언 | · 원고제출 : 출판부(선교관 407호) |
| · 원고매수 : 2백자 원고지 15매
내외 | · 원고마감 : 5월 31일
· 채택된 원고는 계간충현 여름호
에 게재하고 기념품을 드립니다. |

1992년 4월 13일은 나에게 잊지 못할 날로 기억의 한 장을 열어주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는 서만 수 선교님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곳이고, 또 충현교회의 선교지로 지정된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주간충현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이란 광고를 읽고 나는 인도네시아

야생마와 같은 종족들과 뒹굴며 땀과 피로써 이루어놓은 그 열매들! 60여개의 개척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그 정성과 그 노력! 한국인이면서도 얼굴색과 몸매까지도 꼭 인도네시아인과 같이 되어버린 서만수 선교사님! 정말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뜨거운 감사와 찬사를 보낼 뿐

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힘쓰고 현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힘이 되어 그 고통을 덜어드려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우리가 마음만 합친다면, 기도로 뭉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나라의 격언도 있듯이 말이다.

독자의 글

잡신들이 우굴거리는 곳에서의 개가



이석정 권사(제3교구)

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방문단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선교단의 일원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어찌 이 무지한 상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직 나를 택해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시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며, 더욱 더 신명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였다.

그 험한 오지에서 20여년간을 식인종과 무지하고 가난하고

이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83퍼센트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알려진 발리섬에도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돈달라고 손벌리는 어린 아낙네들로 들끓고 있다. 잡신들이 우굴거리는 소굴, 이런 곳에서도 그리스도교를 심는다는 것은 바늘 구멍으로 황소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곳에 와서 그 동안 너무나 안일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동안 못

지금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추진 중에 있다. 우리는 이 일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심어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살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선교부의 신학교가 꼭 세워지도록, 또 이곳에서 많은 교역자들이 배출되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